

경제

■ 일본 대지진 10일째... 불안한 한국 경제

금융시장 요동... 실물피해 속출

원자재 물가 상승압력 가중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유출사태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면서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도 고스란히 '대지진'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지진 이후 일본 엔화가 조강세를 보이면서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던 국제금융시장은 G7(주요7개국)이 기록적인 엔고(高)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착수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실물경제에선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산업 등은 중간재나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이 일본 대지진 사태로 급락했다가 16일을 전후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국내물가에도 상승압력이 가중되는 등 한국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시장 롤러코스터 장세 =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국내 주식시

장과 외환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등락하는 어질어질한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1일 1,955.54로 10일보다 1.31% 하락했으나 14일에는 반사이익이 부각되면서 0.8% 반등했으며 15일에는 원전 사태의 악화로 2.4% 급락했다. 16일부터는 원전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18일 1,981.13으로 마감해 대지진 발생 전(10일, 1,981.58) 수준으로 지수를 되돌려놨다. 서울 외환시장도 엔화가 2차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주요 7개국(G7)의 공동개입으로 급락하는 글로벌 환시의 흐름에 출렁 거렸다.

◇실물피해 속출-이직은 제한적 = 일본 대지진 이후 일부 산업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대일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도 비중에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7일까지 239건, 금액으로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업체가 전체 피해신고 기업의 83.8%에 달해 영세 기업일수록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면세점, 호텔, 카지노 등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여행사는 지진 발생 이후 도쿄에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예약 취소율이 50%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신 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품 부족을 대비해 단축근무에 나서고 있다. 르노삼성엔 이달말까지 주말 특근과 잔업을 중단했으며, 한국지엠도 이번주부터 3개 공장에서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철강, 반도체, 기계 산업 등은 아직 피해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간재나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타격을 받을 것이라

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자재 물가불안 '인형형' = 일본 대지진 사태는 기존의 중동의 정세불안과 겹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물가대외 의존도가 고스란히 놓이면서 물가 불안요인들도 확대됐다.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태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럽과 중국 등이 원전 건설과 보수 등을 미루는 가운데 화력발전과 같은 대체식 발전의 연료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으로 석유, LNG,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중동의 정세불안이 여전히 대다수 일본 대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아파트 전세값 100주 연속 상승

지방 광역시도 89주째 올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10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방학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여진이 남아 있고, 일부 지방의 전세 부족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3월 14일 기준) 전국의 평균 전세값은 전주 대비 0.6% 오르며 2009년 4월6일 이후 100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0.1~0.4%의 주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2월 이후 0.5~0.6%로 상승폭이 커진 상태다. 이 가운데 지방 광역시는 2009년 6월22일 이후 89주째 상승했다. 집값 및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산은 2009년 8월10일 이후 82주, 경남지역은 8월17일 이후 81주째 올랐다.

지방과 달리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난이 심화된 수도권은 작년 8월9일 이후 30주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 전세값이 0.4% 뛰며 지난해 8월16일 이후 29주째 올랐다. /연합뉴스



순천 신대 '중흥S-클래스 2차 아파트' 분양

주말 1만여명 다녀가 인기 실감

순천 신대지구에 분양 중인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2차 아파트' 견본주택에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20일 중흥건설(대표이사 정찬성)에 따르면 지난 17일 순천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에만 1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4일간 2만여명이 방문, 북새통을 이뤘다.

이 아파트는 총 1166가구로, 전용면적 72㎡(28형)·84㎡(33형)·103㎡(39형) 등 중상층 위주로 구성됐다. 중흥건설은 이 아파트를 3.3㎡당

600만원대, 초기 계약금 5%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용자를 해준다. 청약 본주택에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완비했다. 2700㎡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센터에 길이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유아 풀을 제공한다. 수영장은 테크형 설계로 통유리를 설치해 채광이 좋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부담 없는 조건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최초 단지 내 수영장이 들어서 차별화된 아파트라는 인식 때문에 실수요층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2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23일 2순위, 24일 3순위 분양에 들어간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다. 문의 061-727-1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조선 맞춤형 조선인력양성 프로그램 각광

대한조선(주)이 맞춤형 조선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각광 받고 있다.

20일 대한조선에 따르면 이 회사 기술교육원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CHAMP) 사업 운영기관으로 '맞춤형 조선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 전 공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기술연수생들이 수료 즉시 원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100% 취업이 가능하다.

제13기 기술연수생 원서 접수는 오는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이며,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daehanship.com/edu)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훈련 기간은 5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다. 문의 061-531-0404, 0408.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 10곳중 4곳 "장기화뎀 피해"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현재까지 크지 않지만, 장기화되면 기업 10곳 중 4곳은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17일 나흘간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업은 9.3%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업은 43%로, 국내 기업 절반 가까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항공운송과 관광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의 피해가 가장 컸고, 금속(수출 감소), 전자·기계(부품조달 차질), 반도체(생산장비

수입 차질) 등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대일본 수출·매출 차질(58.3%)이 가장 많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품소재 조달 차질(50.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거래처가 지진에 따른 피해를 봤느냐'고 묻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 대지진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후폭풍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65%), 일본과의 교역차질 장기화(29.8%), 국내 소비심리 위축(4.7%) 등이 꼽혔다.

대한상회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외 대체거래선 앞선 ▲납품차질 관련 법률분쟁 상담지원 ▲금융권 대출금 상환 연장 ▲피해신고대응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업계 車·유화 등 부품재고 '바닥'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산 부품소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의원이 20일 지경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산업의 부품 재고가 자동차의 경우 1-3개월, 휴대전화는 1개월, 석유

화학은 3개월에 지나지 않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부품소재의 대일(對日) 수입의

존도가 전체적으로 25%를 웃도는 가운데 지난해 고무·플라스틱 부품의 대일 수입 비율은 73.4%, 비금속광물은 56.7%, 화학제품은 29.5%, 1차금속은 27.5%였다.

연도별 부품소재의 대일 적자는 2005년 161억달러, 2007년 187억달러, 2008년 209억달러, 2009년 201억달러, 2010년 243억달러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3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9 23 29 33 35 43	2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182,294,4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866,824
3 5개 숫자 일치	1,696,041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구이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